

##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(10.3~10.7)

### 1. 수출규제 관련<sup>1)</sup>

#### □ [일본 기업 동향]

- 닛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개별허가로 전환된 반도체 3개 소재를 생산, 한국에 납품하는 일부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o 불화수소를 수출하는 모리타화학의 한 간부는 “9월 중 수출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, 수출 재개가 이루어지는 것이 10월 중이 될지,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알지 못한다.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, 하루라도 빨리 수출 재개가 이루어졌으면 한다” 고 하였음.
- o 스텔라케미과(불화수소) 간부도 “10월 4일 시점에서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. 계속 심사중이며, (수출 가능) 시기가 언제가 될지 알지 못한다” 고 상황을 밝힘.
- 한편 수출허가가 난 기업의 경우, 처음 수출 관련 절차는 서류 미비로 거부당하는 등 경제산업성과 몇 차례에 걸쳐 진행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음.
- o 이 제조업체는 2회차 수출부터는 필요한 절차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고 하였음.
- o 한편 10월 5일자 기준으로 개별허가 대상 소재들의 수출허가 건수는 각각 레지스트 3건, 불화수소 3건,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임.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일본 정부는 개별허가 관련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약 90일 정도로 예상

1) 「日韓対立、長期化に懸念、輸出管理厳格化から3カ月、半導体材料、現段階で許可7件、解決へ道筋見えず。」  
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10. 5).

- 스가와라(菅原) 경제산업성 장관은 10월 4일 “1건 1건의 안전에 대응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” 는 방침을 표명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닛케이(日経)는 일본이 부품·소재를 공급하고, 한국이 완성품을 제조하는 분업 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서 한국 내에서도 최첨단 소재의 국산화에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고 보도
- 한편 강제징용 문제 외에도 WTO에서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를 둘러싼 대립 등 한일 관계는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, 한국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세 번째 무역 상대국인 만큼 관계 악화는 그대로 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

2.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

□ [동향]

- 한국 수입 자동차협회가 10월 4일 발표한 9월의 신차 등록 추이에 의하면, 일본산 브랜드의 승용차는 약 1,100대로 전년동월대비 약 60% 감소
- 이는 8월의 약 1,400대(전년동월대비 약 57% 감소)와 비교했을 때 또다시 감소한 수치
- 이에 따라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9월 16%에서 5%로 급감

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닛케이(日経)는 일본산 자동차의 판매 감소는 7월 초순부터 시작된 자동차, 맥주, 의류 등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, 한국의 불매운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는 가운데, 현 시점에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논평<sup>2)</sup>

### 3. 아베 총리 및 주요 인사의 한일 관계 언급 관련

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<sup>3)</sup>

- 아베(安部) 총리는 10월 4일 임시국회의 소신표명 연설에서 “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” 라고 언급
- o 아베 총리가 연설 가운데 한국을 언급한 것은 2017년 1월 이래 처음임.
- o 한편 한국을 언급한 이후 “국제법에 근거, 국가간 약속을 준수할 것을 (한국 측에) 요구하고 싶다” 고 발언
- 모테기(茂木)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는 가운데,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, “(한국과의) 긴밀한 연대가 지금만큼 중요한 때는 없다” 고 발언
- 한 수상관저 간부는 “지금은 관계가 꼬였지만, 한전보장을 생각할 때 (한국은) 중요한 국가다.” 라고 함.

#### 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마이니치(毎日) 신문은 총리가 한국이 중요한 나라라고 하였음에도, 기존에 사용하였던 ‘매우 중요’ 라는 표현은 피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,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논평<sup>4)</sup>
- 산케이(産経) 신문은 총리의 “한국은 중요한 국가” 라는 발언과 관련, 해당 메시지는 한국 대통령의 대일 정책에 비판적인 한국 내 일본 우호파들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<sup>5)</sup>
- o 또한 2018년 10월 소신표명 연설 당시 북한 문제와 관련, “한미일의 약속” 이라고 했던 표현을 이번에는 피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지

2) 「韓国、日本車販売6割減、9月、不買運動なお続く。」 『日本経済新聞』(2019. 10. 5).

3) 「安倍首相：首相演説 日韓関係に言及復活」 『毎日新聞』(2019. 10. 5).

4) 각주 3의 마이니치 신문

5) 「韓国と距離 対中は融和」 『産経新聞』(2019. 10. 5).

소미아 종료 결정을 감안한 것이라고 논평

#### 4. 한국 정부의 일본 정부 미사일 분석 정보 요청 관련<sup>6)</sup>

#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일본 정부는 북한이 10월 2일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관련,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응해 일본이 분석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
- 일본 정부 관료는 “지소미아 협정 자체는 11월 하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, 정보 요청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” 고 발언
- 외무성 관계자는 “정밀도가 높은 일본의 탐지 위성 영상 및 낙하지점에 가까운 일본의 각종 정보가 (한국 입장에서는) 필요할 것” 이라고 논평
- 일본 정부는 탐사로부터 실탄의 착지까지 이르는 미사일의 상황을 한국이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

##### □ [일본 언론 동향]

-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협정의 중요성을 호소하면서, 종료 결정의 철회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보도

#### 4. 한국인 관광객 감소 관련<sup>7)</sup>

##### □ [일본 정부 동향]

- 한 일본 언론 매체는 한일 관광객의 급감으로 인기 관광명소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
- 일본의 한 전문가는 “일본 관광산업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

6) 「政府、韓国に情報提供へ 協定破棄の撤回促す 北朝鮮ミサイル」 『静岡新聞』(2019. 10. 4).

7) 「韓国人客消え…ため息 8月半減 長期化も、観光業に打撃」 『産経新聞』(2019. 10. 3).

다” 고 전망함.

- 오사카의 한 유명 시장은 평일 관광객의 약 80%가 외국인으로 그 중 20%는 한국인인데, 현재 한국인 관광객은 제로 상태
- 일본정부관광국의 통계조사에 따르면,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는 일본 방문객 전체 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, 8월 일본 방문 외국인수는 전년 동월대비 약 2.2% 감소
- 방일 외국인 관광객 동향에 밝은 와카야마 대학교의 한 교수는 “관광산업은 재해 및 정치 문제에 영향을 받기 쉽다. 한국 외 국가로 일본 방문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파급될 경우,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” 이라고 하면서 보다 다양한 국가에서 관광객을 유치할 필요성을 지적